



현장탐방 고객감동 현장

(주)경농 제주지점

지식기반 구축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제주지역 시장점유율 1위 지점, 2007 최우수상 수상 기업
세미나 무엇보다 중요, 다이센엠-45 · 만장일치 등 제품 출중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독특한 문화 자원이 살아 숨쉬는 제주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섬으로 감귤주산 단지과 밭작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갖춘 국토 최남단의 우리 땅이다. 1981년 제주연락사무소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주)경농 제주지점(지점장 宋鍾守 · 44)을 찾았다.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평가 및 영업감사' 부문에서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이란 쾌거를 일구어낸 지역이다. 제주지점을 책임지게 된 1998년 이후 꼭 10년만의 영광이다. "지식

기반을 구축으로 한 제품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농가 고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럴때만이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영업평가



宋鍾守 지점장

1위와 제주지역의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는 宋지점장의 속내다.

제주지점은 지점장을 비롯하여 SM 2명, AM 2명, 여직원 1명, 기술보급소장 1명 등 총 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면불휴하고 있다.





세미나·판촉활동 다양, 벤치마킹 되기도

제주도의 농업인구 비율은 2006년 기준 18.7%로 전국 7%보다 2.8배나 높은 지역으로 농업부문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 즉,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 안전성이 보장된 작물보호제의 역할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감귤은 제주농업의 70~80%를 차지하지만 온난한 기후로 월동재배 가능한 감자, 당근, 무 등도 출하되고 있다.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宋지점장은 “특별하지 않다”면서도 “평소 직원들에게 담당지역은 내가 지역사장이라는 소명감을 절대 잊지 말자고 강조한다”고 말하고 “영업활동의 시작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다. 철저히 월단위로 작성된 계획표에 의해 활동이 추진되며 남보다 한발 더 뛰어 1회 방문을 2~3회로 늘리며 판매상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전달되는 세미나, DM 등의 홍보 및 판촉활동은 타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자신 있는 속내를 드러낸다.

지역 점유율 1위의 요인은 宋지점장 발언의 곳곳에 묻어있다. “약효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제품은 절대로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경농은 제품의 인지도가 높는데다 전 직원이 세미나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매회 많은 농가들이 세미나 장소를 찾는다”고 만족해한다. 그러면서 다이센엠-45, 모스피란, 바람탄, 만장일치 등의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는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센엠-45는 6월부터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한 감귤 검은점무늬병에 우수한 약효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주력제품에 대한 판촉활동도 덧붙인다.

지역 연구회·작목반과 수시 정보 교환

宋지점장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세미나를 무엇보다 최우선시 한다”면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연구회와 작목반 등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방제복 등 보호장비 착용 등의 중요성에 대해 지도하고 있으며 고독성 보다는 저독성 작물보호제, 친환경적인 작물보호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약효가 우수한 제품 홍보와 핵심농가를 월 1~2회 직접 방문·관리하여 제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례도 들려준다. 사실 과거 제주시 조천읍 지역의 대다수 농가들은 올바른 작물보호제 사용과는 거리가 먼 불모지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점에서 기술보급을 담당하며 조천읍 감귤연구회와 5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는 김권종 기술보급소장은 “직접 감귤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의 마음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는 제품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작물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함으로써 농가 고소득 창출에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직접 제품을 사용한 후 권장하기 때문에 경농제품 뿐만 아니라 작물보

호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으며 농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철학을 들려준다. 이 즈음에도 조천읍 감귤연구회뿐만 아니라 제주 감귤농가의 의식전환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루어낸 김소장의 휴대전화는 농민들의 상담전화로 울림이 계속된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김응영(61)씨는 “매달 정기적 모임인 감귤연구회를 통해 얻는 정보로 불필요한 작물보호제

사용과 방제횟수 감소, 생산비는 물론 노동력까지 줄일 수 있어 고품질 감귤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함박웃음 짓는 그의 얼굴에 경농 제품에 대한 작지 않은 신뢰가 엿보인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를 꾸준히 방문하

여 병해충 발생동향과 정보를 입수하고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宋지점장은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유통질서가 좋은편이지만 시판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연유가 있음을 암시하며 안타까워한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시범도’에 대해 宋지점장은 “탓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절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 사용은 안전성은 물론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생산량 저하로 연계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된 올바른 작물보호제사용만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첩경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그는 “2007년에는 감귤가격이 폭락하여 감귤농가들의 의욕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올해는 작황과 가격이 좋아져서 웃음 띠는 농업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말을 맺는다. ♪

현 장 인 터 뷰

■ 영농 규모 및 경농 제품 사용소감은?

2만5천여㎡에서 감귤재배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5~6월의 초기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농제품은 방제횟수를 줄여주면서도 약효가 우수한 제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은점무늬병엔 다이센엠-45, 특히 바람탄은 깍지벌레, 진딧물, 굴굴나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어 1석3조의 제품입니다. 또한 자나방에 미미이나 팔콘, 감귤개화기때 종합방제는 만장일치를 추천합니다.

■ 일선 농업인으로서 작물보호제의 역할을 든다면?

작물보호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생산된 우수농산물인 ‘얼짱’ 과일이 벌레먹은 과일보다 맛있고 안전합니다.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생산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바로 올바른 작물보호제사용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 재배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소비자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인건비 및 생산비 증가가 가장 큰 애로점 입니다. 최근 약효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방제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잔류량도 남지 않아 도심지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드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김응영(61·제주시 조천읍 조천리)